“청춘에게 꿈을, 하동벌에 울려 퍼진 함성!”

쌍계사, 12월 16일 아웃사이더 초청 공연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허)가 지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열정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12월 16일 하동 중고등학생 500여 명은 학교 강당을 가득 채운 채 쌍계사가 마련한 공연 ‘아웃사이더 아파쇼’를 기다렸다.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쌍계사 주지 원허 스님은 “이 자리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자리다.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도 풀고 자유로운 시간도 가지자. 내년에는 하동 전체 학생들을 위해 더 큰 규모의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1부 공연에서는 불자 힙합 가수 아웃사이더의 아파쇼 강연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이 진행됐다. 가수 아웃사이더는 “청소년기 바라던 꿈이 좌절되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노래하는 행복을 얻었다”며 “힘겨워 도망치듯 떠난 여행의 시간에서 얻은 소중한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성공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2부에서는 비트박스 듀오 ‘프리마테’ 공연과 ‘아웃사이더’의 열띤 공연이 이어져

꿈을 위한 ‘아파쇼 강연’
지역 청소년 포교 일환
하동불교사암연 스님과
하동中·高 500명 동참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또한 하동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함께 학생들과 참석해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불교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동중학교 이유성 학생은 “이런 자리에 스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 공연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웃사이더를 평소 많이 좋아했는데 토크쇼를 들으며 꿈을 위해 노력한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기민 학생은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아웃사이더의 감동적인 꿈을 향한 토크쇼, 정말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하동불교사암연합회는 콘서트 후 하동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하동군청에 기탁했다.

하성미 기자

쌍계사는 12월 16일 하동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꿈을 주제로 한 힙합 가수 아웃사이더의 공연을 개최했다.

“포교 향한 더욱 힘찬 걸음 걷자”

울산 황룡사, 12월 13일, 포교당 이전개원법회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가 울산 옥교동에 새 포교당을 개원했다. 황룡사는 12월 13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당 개원 법회를 개최했다.

개원 법회는 1부 △경과보고 △내빈소개 △축사 △시상 △주지 스님 인사말 △평생교육원 인증서 봉헌 △ 발원문 △ 어린이 법회 소속 리틀붓다 축하 공연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황룡사 소속의 신도들이 직접 준비한 난타, 전자기타 연주, 민요, 색소폰 등 흥겨운 축하공연과 운천 스님의 착한 짜장 공양 등이 준비됐다.

황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에는 정말 많은 스님과 신도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가 황룡사를 직접 창건하신 분들”이라며 “요즘처럼 바쁜 도시인들에게는 시내 한 가운데 사찰이 꼭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전 개원한 황룡사는 울산 태화강변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로 연면적 총 154㎡이다. 1층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북카페, 2층에는 법당과 교육원 등이 위치한다.

하성미 기자

“진주시, 복지관 재수탁 심사 객관성 결여”

해인사 자비원 성공 스님 재심사 강력 요청

해인사 자비원 진주지부장 성공 스님이 15일 시행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수탁 심사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성공 스님은 12월 16일 진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재수탁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이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며 “지난 12년간 전국의 214개의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운영해온 우리가 바뀔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에 따르면 심사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진주시 소속이며 2명은 기독교 관련 단체 기관장이다. 또한 나머지 2명 중 1명은 복지 전공이 아닌 국제대학교 교수이며 나머지 한 명은 복지전공이어도 장애전공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 스님은 “장애인복지관 심사에 장애인 분야 전공자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평성을 위해 불교계 운영 복지단체를 심사할 것이라면 기독교인 심사위원을 넣어선 안 될 것이며 넣고자 한다면 불교계 단체도 2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진주시사회복지과장은 스님의 주장에 대해 “심사위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다”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15일 재수탁 심사에서 수탁기관으로 기독교 시설인 ‘늘사랑’을 선정했다.

하성미 기자

심인문화제 서원가 대회… 금강합창단 대상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2월 15일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서원의 향기 가득한 새 진각의 노래!’란 주제로 2015년 심인문화제 창작서원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정 통리원장과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처장 연암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소임스님, 진각종 서울교구 및 5개 교구 총 11개팀 합창단원 등 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연대회는 경산심인당 부설 중방유치원생의 ‘신기한 연꽃’ 창작 서원동요와 ‘터’란 대중가요로 막이 올랐다. 공연은 서울교구 실상합창단의 경연곡 ‘임이시여’와 자유곡 ‘연꽃처럼’ 외 총 10개 팀이 출전해 각자 창작한 서원가를 유감없이 뽐냈다.

대회에서는 대구 금강합창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진각복지재단 카루나합창단, 특별상은 서원동요 작사자 남예령 어린이와 경산 중방유치원이 선정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종단의 새로운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심인문화제는 불교 교리와 사상을 서원가에 담아 부르게 한 행사다. 한 해를 보내는 회향의 노래이자, 진각 70년을 맞이하는 시작의 노래가 될 서원가의 향연이 종단문화를 창출하고 불교음악의 발전을 견인하는 법륜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진각종 심인문화제는 지난해 대구 수성 아트홀에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음악 대서사시로 장엄한 교성곡 ‘회당’을 선보인 바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산심인당 부설 중방유치원생들의 특별공연.

제18회 실상문학상 본상 성흥영 시인

12월 18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제1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이 12월 18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실상문학상은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문학인들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18회를 맞았다.

시상식에서 실상문학상 본상은 성흥영 시인〈사진〉이 수상했다. 작가상은 정훈교·박서현·최순해 시인과 안경덕·유희자 수필가,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과 최병섭 수필가, 신인상은 이대숙· 남명순 수필가와 김류은 시인이 받았다.

본상을 받은 성흥영 시인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월강회·대한적십자사부산불교봉사회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했으며, 실상문학작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성 시인은 1997년 실상문학 시부분으로 등단해 시집 〈아마도 전생은 나비였어라〉, 〈종소리에 듣다〉와 소설 〈붓다여, 새벽의 깨침이어라〉 등을 펴낸 바 있다.

이날 김창식 실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성흥영 수상자의 작품은 불교를 주제로 시를 엮어내 작품성이 매우 독특하고 뛰어났다”며 “이번에 작가상 수상자로 당선된 이들 또한 뛰어난 작품 세계를 보여줬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혜총 스님은 “현대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하나의 훌륭한 포교사”라면서 “문학가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설법전 5000여 명 운집

국내 최대 규모,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엄산림 법석이 문을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1일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입재 법문에서 방장 원명 스님은 “보살도를 닦는 보살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원력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모인 불자님들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들을 보살도를 성취시켜주는 선지식이라 여기고 성도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 결코 굴복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이번 화엄산림대법회에는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경 감로법문을 펼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 달 뒤에는 모두 깨달음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후 신축 보광선원 선방 보광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기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2016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 (장삼·만의 착용) 2매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_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_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_ ○○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교육원 연수교육비 지원
(5) 해외 연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명성 원감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